

이소영의 '우리지역 우리식물'



변산반도의 아네모네, 변산바람꽃

어딘가로 여행을 갈 때면 나는 늘 식물이 있을 만한 장소를 찾다니다. 식물을 공부한 후로 자연스레 그렇게 되어 버렸다. 파리에서 요리 공부를 하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프랑스로 떠났을 때도 그랬다.

유럽은 식물 연구를 오래 해 온 데다 문화도 발달하여 아무리 도심일지라도 식물과 관련된 장소가 많다. 파리 주변의 식물원과 수목원, 공원, 개인 정원, 자연 사박물관 그리고 자연과학 서적을 판매하는 책방 등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더 이상 갈 만한 식물 장소가 없어 지자 나는 모네의 수련 연작을 보기 위해 오랑주리 미술관으로 향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미술관을 헤매는 내 발길을 멈추게 하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것은 앙리 마티스의 것이었다. 그의 그림 속 어느 방 테이블 위에는 몇 송이의 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분병 아네모네였다.

아네모네는 수많은 예술가로부터 영감의 소재가 되어 왔다. 앙리 마티스, 라울 뒤피, 르누아르, 오딜롱 로동은 각자 곁에 존재한 아네모네를 그림으로 그렸다. 아네모네는 18세기 이후 유럽에서 실내 화훼식물로서 인기가 많았고, 이 식물이 지닌 로맨틱한 이미지와 강렬한 색의 화피는 예술가들의 작품 속 주인공이 될 만한 가치가 충분했다.

식물화와 식물학 일러스트(식물 세밀화)의 차이는 그림 속 식물의 속(가족) 뿐만 아니라 종과 품종까지

도 식별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16세기 독일의 약제사인 바실리우스 베슬러는 앞선 화가들과 마찬가지로 아네모네를 그림으로 그렸다. 다만 그의 그림 속 아네모네는 뿌리부터 줄기, 잎과 꽃 식물의 전체 모습이 있고, 그림 속 세 종의 색과 형태 특징이 뚜렷이 드러난다. 이 그림이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아네모네 식물 세밀화일 것이다.

우리가 도시에서 만나는 아네모네는 우리의 이용 목적에 의해 일 년 내내 꽃이 피도록 재배되지만 원래 이들은 이른 봄 숲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운다. 숲과 들의 아네모네는 인간의 시간이 아닌 자연의 시간을 따라 오로지 Zeit을 살아간다.

아네모네의 또 다른 이름은 바람꽃이다. 우리나라 숲에는 이십여 종의 바람꽃이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서양인 화가가 그린 외래종과 꽃 시장에 유통되는 품종만 보아 왔기에 숲에서 바람꽃을 보더라도 이것이 아네모네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기 일쑤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바람꽃으로는 꿩바람꽃, 홀아비바람꽃, 화리바람꽃, 들바람꽃 등이 속한 바람꽃속과 너도바람꽃, 변산바람꽃이 속한 너도바람꽃속 그리고 만주바람꽃속과 나도바람꽃속, 매화바람꽃속이 포함된다.

이들은 멀리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화피의 형태, 꽃밥의 색 등이 천차만별이다. 나는 특히 변산바람꽃

을 좋아한다. 변산바람꽃은 꽃이 빨리 가장 빨리 피는 편이다. 이들은 이름 그대로 변산에서 처음 발견되어 1993년 신종으로 발표되었다. 너도바람꽃과 비슷하나 화피가 넓고 꽃밥이 보라색이다. 꽃잎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 꽃받침이며, 그 안에는 여러 조각의 퇴화한 꽃잎이 있다.

나는 7년 전 여수에서 변산바람꽃을 처음 만났다. 아직 추위가 다 가지 않은 서늘한 공기, 낙엽이 다 부서지지 않은 물기 가득한 땅에서 단 두 송이의 변산바람꽃이 피어 있었다. 독특한 색과 형태에 나는 금방 이들이 도감 속에서만 봤던 바로 그 식물임을 알아챌 수 있었다. 붉은 줄기 끝에 난 흰 화피 그리고 그 안의 보라색 수술과 연두색 암술 조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자연만큼 훌륭한 컬러리스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흉내 내려 해도 자연의 색 감각을 따라갈 수 없다.

지금 이 추위가 지나면 변산바람꽃도 고개를 내밀 것이다. 우리가 식물의 꽃으로 인해 느끼는 감동은 외관상의 아름다움 때문만은 아니다. 꽃은 식물이 긴 시간을 지나 이루어낸 잘나한 현상 그 자체다. 변산바람꽃은 내게 겨울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만나는 봄에 대한 반가움을 전해 주었다.

매일 밤샘 작업으로 바쁜 일저녁 속에서 몇 개의 밤을 지나 피어날 봄꽃을 떠올리면 이 겨울이 마냥 활랑하게만 느껴지지는 않는다. <식물 세밀화가>

의료칼럼

시력 교정술



김재봉 신세계안과 원장

대입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이 끝나면서 수험생들의 긴 수험 생활이 마무리됐다. 대학 입학에 앞두고 그동안 안 난시 및 고도 근시로 안경을 착용해 왔던 학생들이 생활 속 불편에서 벗어나고 외모를 가꾸기 위해 시력 교정술에 대해 문의를 많이 하는 시기다. 수험생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생, 겨울 레포츠를 즐기려는 이들도 안과를 찾는 일이 많아진다.

눈은 평생 시야를 책임지는 중요한 부위인 만큼 시력 교정술이 가능한지, 최근 어떤 수술이 좋은지, 눈의 상태나 진로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라식 수술은 각막에 절편을 만들어 젖혀 두고 각막의 실질 부위에 레이저를 조사해 근시, 원시, 난시를 교정한 후 각막 절편을 다시 덮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빠른 회복이 가능하지만 충격에 약하고 안구 건조증, 빛 번짐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라섹 수술은 희석된 알코올로 각막 상피를 부드럽게 만들어 벗겨 낸 뒤 레이저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각막 두께가 얇아도 수술이 가능하고 강한 충격에 의해 각막 절편이 손상될 가능성도 없으나, 라식 수술에 비해 시력 회복 속도가 다소 느리고 12월 정도 통증이 있는 게 단점이다.

렌즈 삽입술의 경우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 눈 안에 렌즈를 넣는 수술이다. 라식과 라섹 수술이 하기 힘든 -9디옵터 이상의 초고도 근시나 각막이 너무 얇은 경우에 렌즈 삽입술을 통해 시력을 교정하지만 다소 비싼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스마일 라식'으로 불리는 '스마일'(SMILE: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수술은 이 모든 수술 방법의 장점만을 결합한 수술 방법이다. 회복력이 빠른 기존 라식의 장점에 각막 구조적 안정성이 높은 라섹의 장점까지 결합한 3세대 시력 교정 수술이다. 각막 표면을 절삭하거나 표면을 열지 않고 실질 부위만 교정량만큼 분리해 펌프세컨드 챔버 레이저 장비를 활용한 수술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각막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20mm 이상 각막을 절개해 시력을 교정하는 라식과는 다르게 스마일 수술은 약 1~2mm의 최소 절개만으로 각막 실질부만 제거한다. 수술 다음 날부터 근거리 작업은 물론 가벼운 운동과 화장도 가능하다. 또한 각막 두께를 만들지 않아

라섹과 같이 외부 충격에 강하며, 각막 절개 부위가 적어 안구 건조증이나 빛 번짐 등 부작용 발생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최소 절개를 통해 수술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스마일 라식의 수술 난이도는 기존 시력 교정술보다 높은 편이다. 따라서 스마일 라식의 수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숙련도가 높은 의료진을 선택해야 한다. 의료진의 숙련도가 높을수록 수술 시간을 단축해 수술 중 외부 감염 및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광주 신세계안과는 지난 2013년 광주·전남 최초로 스마일 수술을 도입한 후 호남 최초로 수술 건수 5만례를 달성했다. 또 고가의 첨단 스마일 수술 장비인 'VISUMAX' 3대를 운영하여 과부하 문제를 최소화했다. 이로 인해 수술 시간을 단축하여 환자의 대기 시간을 대폭 줄였다. 또한 각막 최소절개로 신경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하고 저에너지 사용으로 스마일 수술 중 발생하는 가스 기포 발생량을 억제시키고, 렌티클 표면도 매끄럽게 하여 각막 손상을 방지하고, 시력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안구 건조증이나 수술 후 빛 번짐 가능성 등의 부작용 발생 확률을 낮췄다.

시력 교정술은 눈부신 기술 발전을 이룬 분야이지만 검사와 분석을 거쳐 자신에게 맞는 수술 방법을 신중하게 택해야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시력 교정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기고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설 명절



김신남 전남도 도민안전실장

"안전 문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챙겨야 한다. 재난은 현장에 답이 있으므로 '현장 선 조치-후 보고-예산 지원'의 단계로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안전을 행정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재난 대처와 관련해 평소 늘 강조하는 말이다. 전남의 재난 안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도민안전실장으로서, 필자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민중 대이동이 이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곳곳의 안전관리 대책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헬러인 축제 현장의 대규모 압사, 연말 제2 경인고속도로 밤을 터널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번 설 연휴 기간 도민과 귀성객들의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 현안이 됐다. 화재·압사 등 사회 재난은 예측 불가 상황이 다반사라 평소 철저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교통사고는 명절, 행사철 등 이동이 많은 시기에 더 많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교통사고는 도내 재난재해 사망자의 60~70%를 차

기 사고, 매년 산업재해 사망의 다섯 배 이상, 화재 사망의 열 배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빈발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전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90년 1009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 387명까지 줄었지만, 교통사고는 여전히 도민의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재난이다. 전남도는 2018년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책을 도정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 왔다.

도민 의식 개선과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에 5년간 1940억 원을 과감히 투자해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인식과 스포츠용 보행 안전 시설, 과속 단속 장비 확충, 마을 보행로 정비, 스마트 횡단보도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시설을 보강했다. 그 결과 2022년 전남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민선 7기 48.3% 감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전남도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부터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즌II'에 돌입한다. 인구 고령화, 열악한 농어촌 도로 환경, 사고 다발지 등 지역 실정을 반영해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민·관·경과 유관기관 모두가 참여하는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첫째, 안전한 교통 문화의 정착이다. 교통사고 발생 원인의 약 70%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의무 불이행에서 비롯된다. 운전자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TV 시청 등 전방 주시 의무 태만과 보행자의 무단 횡단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민·관·경 거버넌스를 통한 정보 공유와 캠페인,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과 이륜차, 운행

기록 장치치를 이용한 안전운전 인센티브제 도입 등 범도민 안전한 교통 습관 생활화에 노력할 방침이다.

둘째, 농기계,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행 보조용 의자차 등 고위험 이동수단의 집중 관리다. 매년 4월 농번기에는 어김없이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가 다른 달에 비해 많이 발생한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수습을 위해 농기계 경보장치 지원과 알람 시스템을 보급하고, 농기계 사고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사고 위험 표지판도 설치하고자 한다.

셋째, 첨단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교통약자 우선 배려 정책이다. 초고령화 지역의 실정에 맞게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불어 생업 종사 등 부득이 운전이 필요한 고령자를 위한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지원을 병행하고, 보행 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도 올해 새롭게 도입한다. 또 마을 앞 사각지대 실시간 사고 위험 정보 표시 시스템 등 첨단 교통안전 인프라를 확충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2023년 계묘년은 지해를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해'다. 우선 설 명절 연휴 동안 분야별로 빈틈없고 지혜로운 안전관리로 도민과 귀성객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도내 재난재해 사망 비율이 가장 높은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전남도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즌II'의 성공을 위해 안전 분야의 행정력을 결집할 계획이다. 전라남도의 교통안전 시책 이 다시 한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함께 하길 기대한다.

社說

43년 만의 '화해' 5·18 진상 규명으로 이어가야

5·18 관련 세계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 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17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5·18 당시 숨져 이곳에 잠들어 있는 특전사 대원 묘소를 참배하기 위해서다.

5월 단체들의 특전사 묘역 참배는 5·18 이후 처음 있는 일로 43년 만에 가해자인 계엄군과 5·18 피해자들이 화해의 물꼬를 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5월 단체에 앞서 특전사 동지회는 지난 11일 광주를 방문해 5월 단체에게 감골을 전달하며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특전사 대원들은 가해자이자 피해자라고 할 것이다. 계엄군 신분이란 점에서는 가해자임이 분명하지만 전투원이 이끄는 계엄사령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처지다 보니 5·18 이후에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5월 단체들이 현충원을 참배하기로 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 사죄의 마음

으로 몰래 광주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특전사 대원이나 광주에서 봉사활동을 한 계엄군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도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됐다.

특전사 동지회는 5월 단체에 화답하는 의미에서 다음달 19일 회원 100여 명과 함께 5·18민주묘지를 찾아 사죄의 참배를 하기로 했다. 나아가 두 단체는 정기적으로 양측 묘소를 참배하고 교류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양측이 화해의 물꼬를 튼 만큼 이제부터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5·18 진상 규명에 힘을 모아야 한다. 사실 5월 단체의 현충원 참배에 반대하는 내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진상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선부는 화해가 가해자들에 대한 면죄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가해자이자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특전사 측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양심 고백과 증언으로 진실 규명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설맞이 준비, 값싸고 정 넘치는 전통시장에서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세파는 거칠고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하지만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가족들 만날 생각을 하면 벌써 마음이 설렌다. 설맞이 준비를 위해선 제수용품과 선물 구입이 필수다. 하지만 식자재를 비롯한 전반적인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예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때도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지출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설 제수용품 27개 품목의 가격을 비교 조사했다. 그 결과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데 드는 비용(4인 기준)은 전통시장이 평균 27만 656원, 대형마트는 32만 9473원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5만 8817원(17.9%) 저렴한 것이다. 경제난 여파로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살림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번 설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 및 현금 행사도 진행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오는 31일까지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 할인이 기존 5%에서 10%로 확대되고, 1인당 월 구매 한도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광주 서구는 오는 21일 까지 양동전통시장 내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건어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30%,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현금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주차 걱정도 덜 수 있게 됐다. 이용객 편의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광주·전남 7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 허용 구간이 운영된다. 대형 마트 못지않게 질 좋은 상품들이 가득한 전통시장에서는 가격을 흥정하며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다. 여기에 경기 불황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상인들이 작은 보탬이 될 수도 있으니 일석삼조다. 이번 설에는 전통시장에서 설맞이를 준비하자.

無等鼓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자주 보게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엠블럼은 뱀 한 마리가 휘감은 지팡이다. 응급차, 의사 가운 등에서도 볼 수 있는 이 문장(紋章)은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가 가지고 다녔으며, 이후 의학의 상징이 됐다. 아스클레피오스는 태양의 신 아폴론의 아들로 반인반마 켈터우로스 케이론에게 의술을 배워 죽은 사람을 살려 낼 정도의 능력을 가졌다.

2007년 논문 '대한의사협회 휘장의 소의 뱀개를 맞고 죽은 미노스 왕의 아들 글라우코스'를 치료하던 중 방 안으로 뱀 한 마리가 들어오자 깜짝 놀라 죽어 버렸다. 그런데 또 한 마리의 뱀이 방안으로 약초를 입에 물고 죽은 뱀 위 위에 올렸더니 살아났다. 이를 본 아스클레피오스가 같은 약초로 글라우코스를 살려냈다. 이후 그 뱀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아 뱀이 휘감은 지팡이를 자신의 상징으로 삼았다.

아스클레피오스의 의술에 필적할 만한 인간은 히포크라테스다. 기원전 460년경 태어나 370년경 사망한 그는 의술을 학문적 영역으로 다뤘고, 감정이 뇌에 기반한

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다. 히포크라테스는 의술을 가진 이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선서로 작성했는데, 그 내용은 봉사·양심·위엄·명예 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의술은 곧 인술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의료 서비스의 비대칭과 불균형의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전남도는 물론 공공의 대 설립을 요청해 왔다. 시민단체도 정부도 이에 동조하는데, 사실상 '전권'을 쥐고 있는 의사협회는 요지부동이다. 의

히포크라테스

사들은 월급 3000만 원을 쥐도 지방의료원에 안 갈만큼 몸값이 높아서이고, 의료 수가가 낮다는 이유로 소아과 전문의들이 급감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정부가 대대적인 확대를 시도하자 '파업'으로 맞섰던 의사협회는 의사들의 '고수익 보장'에만 치중하며 정작 자신들이 한 선서의 내용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어디에서든 어떤 사람들이든 의사를 지금보다 더 쉽게 만나 의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정부가 더 이상 의사들의 기득권 수호에 골몰해서는 안 된다. /유현석 정치부 부국장 chadol@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Include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